

장애인 문화 향유권 확대... 예술 통한 '경계 넘기'

ACC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시각 중심 탈파... 장애인 참여 유도
공간·프로그램·인력 등 접근성 강화
“무장애” 장르 선정, 창작활동 제고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이 전시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시각 중심의 전통적 예술에서 탈피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접근성 강화 주제전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는 17일 개막해 오는 6월29일까지 복합전시6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문화기관’을 지향하는 ACC가 개관 10주년을 맞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협력해 선보인다. ‘배리어 프리(무장애)’를 보조수단이나 장치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장르로 구축해 완성한 회화, 사운드, 조각 융복합 작품 등이 빼곡히 자리한다.

전시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우리의 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변한다. 이를 예술로 풀어내 ‘경계 넘기’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시에는 무장애, 장애, 참여, 상호작용 예술을 연구해 온 국내의 5인(팀)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또한 전시 관람객들을 참여자라고 부르는 것 또한 특징이다. 모든 작품은 참여자의 개입을 통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ACC 측의 설명이다.

실제 17일 찾은 전시 현장에는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참여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장애인 참여자들은 현장에 상주하는 접근성 매니저의 설명을 듣고 송예슬 작가의 인터랙티브 설치작 ‘아슬아슬’을 체험했고 촉각·청각·움직임 등으로 예술을 향유했다.

이날 확인한 엄정순 작가의 ‘코 없는 코끼리 no.2’는 전시 주제를 관통하는 작품이었다. 마치 “코가 없으면 코끼리가 아닐까요?”라고 묻듯 신체적 차이를 결함으로 받아들이려 혐오와 차별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를 직관적으로 꼬집는다.

야야 모모세 작가의 ‘소셜 댄스’를 통해 수어로 이야기하는 여성의 손을 언어이자 감정의 도구로 표현했으며 ‘녹는점’에서는 커피바와 유사한 공간에서 퍼포머가 참여자에게 직접 작가의 온도와 동일한 물을 제공해 타인의 신체를 느껴보는 이질적인 감정을 체험케 한다.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 전시가 개막한 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복합전시6관에서 엄정순 작가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33번의 흔들림’을 감상하고 있는 장애인 참여자.

김원영·손나예·여혜진·이지양·하은빈 작가의 작품 ‘안녕히 영키기’는 장애·비장애인 참여자가 함께하는 움직임, 글쓰기, 대화의 시간을 보여준다.

해미 클레멘세비츠 작가는 눈과 귀의 근본적인 관계와 언어에 관심을 두고 신작 ‘궤도’를 구현했다.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의 대응, 지각적 다양성을 부각

한 작품이다.

이번 전시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작품 외에도 모든 참여자를 포용한 접근성 강화다. 공간, 프로그램, 인력의 배치를 장애인 친화적으로 구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및 시각장애인 참여자를 위한 촉감바를 벽면에 설치해 전시의 동선을 안내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신

체기관을 촉감타일로 제작했다. 전시 공간을 사전에 탐색할 수 있는 축지도, 동화 형식으로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홍보물과 점자책, 게임 방식의 오디오 가이드, 어린이 참여자를 위한 상설 교구재, 음성 해설 등이 전시장에 비치됐고 접근성 매니저가 상시 근무해 전시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한편 ACC는 이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월29일까지 ACC에서 전시를 진행한 뒤 오는 7월 23일부터 8월22일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모두미술공간에서 순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전시와 연계해 다음달 13일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와 협력한 터치투어 프로그램이 시각 장애인 관람객을 초청해 운영된다.

김상욱 ACC 전당장 직무대리는 “융복합 창·제작 기관인 ACC가 ‘배리어 프리’를 전시의 장르로 선보인다. 장애 유형별 향유 접근성 외에도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은 물론 모든 관람객이 자연스레 방문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문화 접근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찬기** chan.park@jnilbo.com

전남도립미술관, ‘미술관 사람들’ 확대 운영

청소년 진로탐색 교육프로그램
컨서베이터(보존전문가) 과정 신설
오는 11월까지 이메일·공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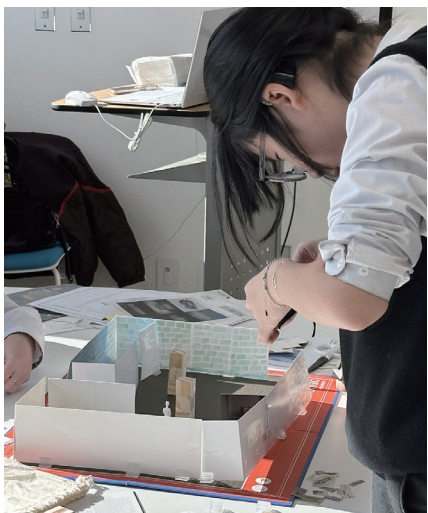
전남도립미술관은 청소년 대상 학교 연계 진로탐색 교육 프로그램인 ‘미술관 사람들’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

17일 전남도립미술관에 따르면 올해 ‘미술관 사람들’은 지난해 운영한 ‘큐레이터’와 ‘전시 디자이너’ 과정 외에도 ‘컨서베이터’(보존 전문가) 과정을 신규 개설해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미술관 사람들’은 국립현대미술관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미술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협력 프로그램이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지난해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개정된 교육과정 및 진로 탐색 중심의 교육 흐름을 반영해 개발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단체(15~30명 단위)를 대상으로 오는 6월3일부터 12월 2일까지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세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이달부터 오는



전남도립미술관은 청소년 대상 학교 연계 진로탐색 교육 프로그램인 ‘미술관 사람들’을 올해 ‘컨서베이터’(보존 전문가) 과정을 신규 개설해 확대 운영한다.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11월까지 이메일 또는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내용 및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artmuseum.jeonna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찬기**

“어린이문화원과 함께 한 10년의 기억 찾습니다”

내달 4~5일 현장 접수
10주년 특별전시 활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 어린이문화원에서 함께한 10년의 기억을 수집한다.

17일 ACC재단은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어린이문화원과 관련한 시민들의 기억 속 물품과 자료 등을 공개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간 어린이문화원을 방문했던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1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수집 대상은 어린이문화원에서의 소중한 기억이 담긴 물품과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으로 오는 11월25일 개막하는 어린이 특별전시 ‘판타지 인벤토리(Fantasy Inventory)’에 활용할 예정이다.

ACC재단은 다음달 4일과 5일 열리는 ‘ACC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 11’ 행사 기간 중 어린이문화원 로비에 ‘기억의 인벤토리’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물품과 자료들을 받을 예정이다.

또 9월30일까지 이메일(inventory@accf.or.kr)을 통한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박찬기**

“ACC 공연으로 떠나는 13세기 몽골 여행”

공동 인형극 ‘아를을 깨물었을 때’
내달 3~4일 ACC 어린이극장서

한국-몽골 수교 35주년 기념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특별한 공연이 마련된다.

ACC는 어린이·청소년 공연 ‘아를을 깨물었을 때’를 다음달 3~4일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이 공연은 5월23일부터 6월 1일까지 강원 춘천에서 열리는 ‘제24회 국제유니마총회 & 춘천세계인형극제’와 연계해 ACC, 춘천인형극제, 몽골 국립인형

극장이 공동 개발한 인형극으로 동명의 ACC 이야기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다.

이야기는 몽골의 전통 우유과자인 ‘아를’을 깨문 순간 13세기 몽골로 떠나며 시작된다. 고향에서 불모로 잡혀 와 몽골에서 홀로 살아가는 고려 왕자 지우와 고려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우의 몸종이 된 사르, 몽골의 실존 인물인 쿠틀론 공주가 등장해 ‘아를’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

원작 동화책에 한국과 몽골의 설화를 추가·각색해 양국의 문화를 보여주고, 몽

골 국립인형극장과 함께 인형을 제작해 대사 없이 진행되는 인형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몽골 국립인형극장은 1948년 설립된 몽골의 유일한 전문 국립 인형극장으로 15명의 단원이 상주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형극과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5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다. 예매는 ACC 누리집(www.acc.go.kr) 또는 전화(1899-5566)로 하면 된다. **박찬기**

방과 후, ACC서 펼쳐지는 미디어 아티스트 체험

내달 문화정보원B2 미디어실
15명 모집... 매주 수요일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다음달 7~28일 매주 수요일 문화정보원B2 미디어실에서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 ‘방과 후 ACC 청소년 예비전문인교육-미디어 아티스트’를 운영한다.

17일 ACC에 따르면 이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문화예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군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미디어 아티스트와의 만남 및 체험 △미디어 아트 작품 제작 △미디어 아트 관련 진로 설계 등이다. 참가자들은 영상, 상호작용 아트, 프로젝션 맵핑 등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아트를 탐색하고 직접 작품을 제작한다.

다음달 7일 진행되는 첫 번째 수업에서는 미디어 아트의 개념과 다양한 장르를 탐색하고, 미디어 아티스트라는 직업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미디어 아트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알아보고 기본적인 활용법을 익힌다.

이어 다음달 14일 두 번째 수업에서는 카메라와 사운드 장비를 활용해 원본 영상과 사운드를 직접 촬영하고 녹음하는 실습이 진행된다.

세 번째 수업은 다음달 21일 진행되며 제작된 영상과 사운드를 후가공하는 과정으로 작품 제작을 위한 편집 기법을 배우게 된다. 5월28일에 열리는 마지막 수업은 참가자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발표하는 자리로, 프로젝트 맵핑 기술을 활용해 작품을 구현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15명을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욱 ACC 전당장 직무대리는 “참가자들이 미디어 아트를 직접 제작하며 창의적 사고를 기르고, 예술적 표현 능력을 향상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기**

